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말씀 목상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최근 세간의 Issue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 챗 GPT와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혹시 이게 뭔가?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의 삶을 송두리채 바꿔놓을 만큼 혁신적인 인공지능 AI의 개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출시 한 달만에 월 사용자가 1억명에 도달한 것을 보면 (구글은 이용자 1억명에 도달하는 데 8년이 소요됨) 가히 천지가 개벽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오픈 AI가 만든 이 대화형 AI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은 물론 수준높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심지어 챗 GPT는 높은 수준의 논문과 에세이를 작성해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계에 큰 혼란이 벌어지는등 관심만큼 논란도 큼니다. 한번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저도 경험해 보고자 검색창에 "시카고에서 가장 좋은 식당은 어디니?"라고 물었습니다. 보통 구글에서는 나름대로 소유한 정보를 근간으로 일목 요연하게 식당 리스트가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챗 GPT는 구글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옵니다. "가장 훌륭하고 좋은 식당은 사람이 느끼고 좋아하는 음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시카고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식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매우 논리적으로 식당을 음식별로 자세하게 소개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챗 GPT로 숙제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판사의 판결문도 챗GPT이 써준대로 진행되었다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맞는 시를 써 달라고 하면 챗 GPT가 쓴 것인지 사람이 직접 쓴 시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실력과 문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연애편지도, 아티클도, 논문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챗 GPT의 역할이 두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챗 GPT가 설교문도 작성해 주는 시대가 곧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챗 GPT에게 본문을 설정해 주고, 특정한 주제를 선택한 다음 설교문을 써 보라고 하면 그럴듯한 설교문 역시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리하다라는 생각보다 사실 어디까지 챗 GPT의 영향력이 미치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 다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말 걸오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기보다 이제는 챗 GPT를 통해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깨닫게 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계나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기술발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칫 이 기술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아니 하나님과 교통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대신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과 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는 말씀묵상에 게을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유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영원히 변치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허히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묵상시간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 인것 같습니다.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브릿지 교회 담임목사 임무영 드림



THE BRIDGE
FELLOWSHIP CHURCH OF CHICAGO

2023. 2.12

41 S Rohlwing Rd. Palatine, IL 60074 / thebridgechurch.chicago@gmail.com / www.chicagobridgechurch.org

차세대 사역자: Grace Lee(유치부), Ahyuwani(Youth), Janice Kim(유/초등부)
담임목사: 임무영

시카고 브릿지 교회 DNA를 찾아서 2

NEW SERMON SERIES

"나의 사랑, 나의 교회"

(My Love, My church)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



유기적 (ORGANIC)

2/5(주일)-3/19(주일)

